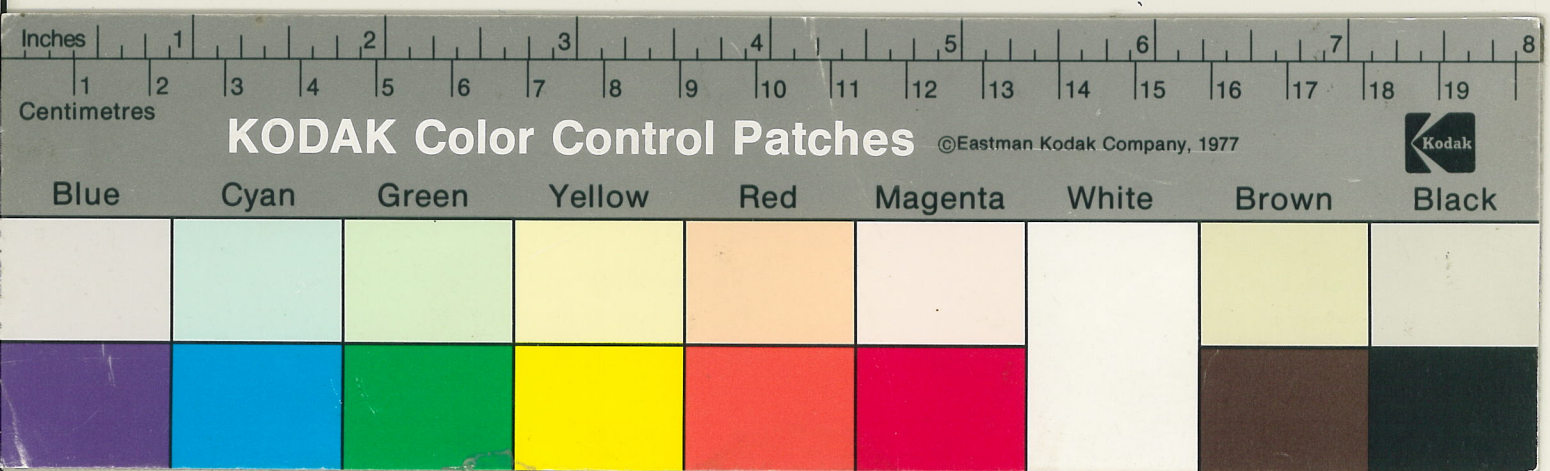
瑞士建國誌

瑞士建國誌

대한황성박문서관 발행

34
1907
登錄番號 31911
分類番號
圖書番號



셔스건국지

정치쇼셜 셔스건국지 젼

대한황셩 박문셔관 발힝

登録番号 319811
分類番号
圖書番号

ᄃᆡ져 쇼셜이라 ᄒᆞᄂᆞᆫ것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ᄒᆞ며 사람의 졍신을 활동케 ᄒᆞᄂᆞᆫ ᄒᆞᆫ 긔관이니 그럼으로 ᄃᆡ셔 학사들이 말ᄒᆞ기를 엇더ᄒᆞᆫ 나라던지 그 나라에 무슴 쇼셜이 셩힝ᄒᆞᄂᆞᆫ것을 보와 인심과 풍쇽과 졍치와 사샹을 가히 알이라 ᄒᆞ니 ᄎᆞᆷ 격언이로다 구미문명ᄒᆞᆫ 나라마다 쇼셜의 션본을 발힝ᄒᆞ야 녀항간 우부우부라도 엇더ᄒᆞᆫ 나라ᄂᆞᆫ 인심풍쇽이 엇더ᄒᆞ고 엇더ᄒᆞᆫ 나라ᄂᆞᆫ 졍치사샹이 엇더ᄒᆞᆫ지 다 능히 아ᄂᆞᆫ고로 사람의 셩품을 비양ᄒᆞ며 빅셩의 지혜를 기도ᄒᆞ거날 우리나라ᄂᆞᆫ 여간 국문쇼셜이 잇다ᄒᆞ나 허탄무거ᄒᆞ거나 음담 픽셜이오 한문 쇼셜이 잇스나 또ᄒᆞᆫ 허무ᄒᆞ야 실샹이 즉어셔 족히 후셰에 감계와 모범이 되지못ᄒᆞᆯ지라 오직이 셔스건국지라 ᄒᆞᄂᆞᆫ 칙은 셔스국 스긔니 구라파 즁ᄒᆞᆫ 져은 나라인ᄃᆡ 인방의 병탄ᄒᆞᆫ바ㅣ되여 자유 활동치못ᄒᆞ고 무한ᄒᆞᆫ 학ᄃᆡ와 간고ᄒᆞᆫ 긔반을 밧다가 기국즁에셔 영웅이 창긔ᄒᆞ며 의스를 규합ᄒᆞ여 강닌의 독쇼를 버셔나고 열방의 슈치를 면ᄒᆞ며 독립긔를 놉히세운 ᄒᆞᆫ쾌ᄒᆞᆫ 스긔은 ᄃᆡ부인과 학식부족ᄒᆞ신이라도 보기 편리ᄒᆞ게 국문으로 번역ᄒᆞ엿스오니 쳠군ᄌᆞ는 구람ᄒᆞ시기를 바라나이다

박문셔관 로익형 자셔

셔문

◉셰샹 사람들아 나라가 젹다 말고 셔스를 볼지어다 유림쳑로 굿흔 사람만 잇스면 회복ᄒᆞ는 큰 일이 되ᄂᆞ니라 뭇노니 유림쳑로는 엇더ᄒᆞᆫ 사람인고 글으ᄃᆡ 용밍 잇는 영웅이라ᄒᆞᆯ가 아니라 그 ᄲᅮᆫ 아니며 글으ᄃᆡ 지조 잇는 호걸이라 ᄒᆞᆯ가 아니라 그 ᄲᅮᆫ 아니오 지극ᄒᆞᆫ 졍셩이 하ᄂᆞᆯ에 사모치는 사ᄅᆞᆷ이니 예로브터 이제에 통ᄒᆞ여 련하를 뒤집던 영웅도 만하엇고 셰샹을 휘덥던 호걸도 아니엇지만 지셩 아니고 큰 일에 셩공ᄒᆞᆫ 쟈 어ᄃᆡ 잇소 ᄃᆞᆯ엇는가 ᄉᆞ리스의 알락산더 보앗는가 부란스의 나팔니옹 십년 공부 나무아미타불 내군ᄉᆞ가 굿셰다고 약ᄒᆞᆫ 쟈를 압졔ᄒᆞ며 내 지물이 만타고 빈ᄒᆞᆫ이를 능모ᄒᆞ야 남의 ᄯᅡᆼ을 내것ᄀᆞᆺ치 남의 사ᄅᆞᆷ을 내죵ᄀᆞᆺ치 알려면 안어지고 죽이려면 죽이이매 위엄도 한량업고 긔셰도 거륵터니 호랑ᄀᆞᆺ흔 욕심과 도젹ᄀᆞᆺ흔 힝실은 하ᄂᆞ님의 허락지 안는비라 아귀ᄀᆞᆺ치 경영ᄒᆞ여 쳔만셰를 누리자던 부귀공명 ᄭᅮᆷ결ᄀᆞᆺ치 지나가고 거품ᄀᆞᆺ치 슬허졋다 어질고 녀 합즁국의 와싱돈은 여돕히의 독립젼에 뷘손으로 붓들어셔 ᄉᆞ싱을 불고ᄒᆞ고 지셩으로 담

당ᄒᆞ여 포악무도ᄒᆞᆫ 뎍국을 구츅ᄒᆞ고 만억년 무강ᄒᆞᆫ디 업을세웟스니 공덕이 텬디ᄀᆞᆺ치 광대ᄒᆞ고 심ᄉᆞ가 일월ᄀᆞᆺ치 광명ᄒᆞ여 텬하만셰에 그짝을 구ᄒᆞᆯ지면 셔ᄉᆞ의 유림쳑로 아니고는 다시 업슬지로다 일이만국이 그부강ᄒᆞᆫ 형셰를 밋고 셔ᄉᆞ국의 빈약ᄒᆞᆷ을 속이여셔 일홈업는 군ᄉᆞ로 남의 나라를 탈취ᄒᆞ여 사나온 정ᄉᆞ와 ᄉᆞ다라온 법령으로 셔ᄉᆞ의 사람을 사람ᄀᆞᆺ치 보지아니ᄒᆞ고 개나 도야지처럼 ᄃᆡ졉ᄒᆞ야 살니고 죽이기와 주고 쎄앗기를 임의로ᄒᆞᆫ즉 무고ᄒᆞᆫ 챵싱의 원통ᄒᆞᆫ 긔운이 텬디에 츙만ᄒᆞ고 원망ᄒᆞ는 소래가 산쳔을 진동ᄒᆞ거늘 일이만의 관원들은 양양득의ᄒᆞ는 말이 셔ᄉᆞ의 사람은 괴로으나 일이만의 사람은 질거오며 셔ᄉᆞ의 사람은 우나 일이만의 사람은 웃는다ᄒᆞ여 잔포악독ᄒᆞᆫ 일이 갈ᄉᆞ록 우심ᄒᆞ니 하날이 엇지 무심ᄒᆞ시리오 셔ᄉᆞ국민을 구졔ᄒᆞ고 셔ᄉᆞ국권을 회복ᄒᆞ여 셔ᄉᆞ국을 즁흥ᄒᆞ랴고 산은 놉고 물은 고흔 오려ᄯᅡ에 일위영웅이 싱겻스니 긔골이 쟝대ᄒᆞ고 형샹도 긔걸ᄒᆞ거니와 츙심으로 뼈를삼고 의긔로 살을삼아 지셩으로 ᄋᆡ국ᄒᆞ는 유림쳑로 그사람이라 활발ᄒᆞᆫ 긔샹과 강개ᄒᆞᆫ 심졍이 사람에 ᄲᅱ여난즁에 무예가 슉달ᄒᆞ고 모략이

긔이ᄒᆞ여 안으로 어진 안히의 도음과 아래로 착ᄒᆞᆫ 아ᄃᆞᆯ의 밧듬이 잇슬ᄲᅮᆫ더러 ᄉᆞ방의 유지ᄒᆞᆫ 션비가 구름ᄀᆞᆺ치 좃츠며 바람ᄀᆞᆺ치 응ᄒᆞ여 기동 아래 욕이 잠시의 회를 당ᄒᆞ엿스나 실과쏘는슈단으로 부쟈의목심을 서로 구원ᄒᆞ며 사아ᄲᅢ졋는요힝으로 탁신ᄒᆞ는 긔회를 엇어 한칼에 대뎍의 쟝슈를 버히고 한 북에고국의 산쳔을회복ᄒᆞ니 쟝ᄒᆞ도다 유림쳑노여 그 처음으로 일어나는 ᄲᅢ에 구구슈쳔에 차지 못ᄒᆞ는 무리가 긔계의 미비ᄒᆞᆷ과 형셰의 단약ᄒᆞᆷ으로 심히위ᄐᆡᄒᆞ거ᄂᆞᆯ 동밍회복가 일셩이 쳥텬에 벽력ᄀᆞᆺ치 국민의 긔운을 분발ᄒᆞ여 맛츰내 대공의 셩취가 손 바닥을 ᄃᆡ집듯시 쉬엿도다 그러ᄒᆞ나 이는 유림쳑로의 용밍으로 능히ᄒᆞᆫ바도 아니오 ᄯᅩ 유림쳑노의 지조로 능히ᄒᆞᆫ 바도 아니라 유림쳑노의 ᄃᆡ셩이 능히하ᄂᆞᆯ에 사못쳐셔 하ᄂᆞᆯ이 그지셩을 감동ᄒᆞ신고로 도으시며 도으시샤 그 큰 스업을 일우게ᄒᆞ심이며 그 큰 공덕을 힝케ᄒᆞ심이니 지셩이 업슬진ᄃᆡ 알락산ᄃᆡᄀᆞᆺᄒᆞᆫ 영웅이며 나팔니옹ᄀᆞᆺᄒᆞᆫ 호걸이라도 남의 토ᄃᆡ를 노략ᄒᆞ며 남의 인민을 능욕ᄒᆞ는 거시일시의 셩공이오 바람압헤 등불이오 물 우헤 말음이라 엇지 쟝구ᄒᆞᆷ을 엇으리오 뭇노라 유림쳑노야 폴난도와 교스사고는 엇지ᄒᆞ야 져ᄀᆞᆺᄒᆞᆫ 츙의지셩으로 아라사의 사로

잡힘 이되여 그 나라를 회복지 못ᄒᆞ엿는고 고스사고는 지셩이나 폴난도의 사람들은 지셩이 부족ᄒᆞ여 일심합력지 못ᄒᆞᆫ고로 그허홈이니 이 말솜을 의심케든 이태리의 가보어를 볼지어다 사듸니아의 적은 나라로도 오디리의 강병을 비쳑ᄒᆞ고 능히 그 일통ᄒᆞ는 공을 세운 쟈는 츙신 의스의 지셩이 금셕ᄀᆞᆺ치 일치ᄒᆞ여 뎍국을 져당ᄒᆞᆫ 연고라 그러ᄒᆞᆫ고로 아모리 지셩이 잇다ᄒᆞ여도 독력으로는 엇지ᄒᆞ지 못ᄒᆞᄂᆞ니 이는 유림쳑노의 더욱 어진 증거로다 셰샹 사람들아 나라가 젹다 말며 사람이 업다 말고 셔스를 보며 유림쳑노를 보아 한 사람의 츙셩이나 의긔를 밋지 말고 쳔만인의 동심합력ᄒᆞ는 지셩을 기ᄃᆞ려셔 국권의 회복을 도모ᄒᆞ고 망령된 싱각으로 나라 그릇트리는 일을 힝치 말지어다

셔스건국지

화셜 텬긔디벽ᄒᆞᆫ후로 셰계샹에 허다ᄒᆞᆫ 나라의 흥망셩쇠는 낫낫치 긔록ᄒᆞ기 어려우나 오작 흥망의관계는 젼혀 그나라 인민에게 잇스니 인민이 어리셕으면 그나라이 망ᄒᆞ고 인민이 지혜롭고 인국심이 군졀ᄒᆞ면 그나라이 흥ᄒᆞᆯ쁜아니라 왕왕이 허다ᄒᆞᆫ 영웅이 그스이에나셔 위틱ᄒᆞ다가 다시평안ᄒᆞ고 망ᄒᆞ다가 다시 보존ᄒᆞᆷ을 일우ᄂᆞ니 이는 다영웅ᄒᆞ걸의 본식이며 또ᄒᆞᆫ 국가의 흥복이라 이런고로 고금의 경텬동디ᄒᆞ는 영웅을 의론컨디 각기 출쳐와 긔회가 달으며 용심과 힝스가 또ᄒᆞᆫ ᄀᆞᆺ지아니ᄒᆞ니 엇지 일례로 의론ᄒᆞ리오

차셜 셔력 일쳔이빅년간에 구라파 쥬앙디방에 ᄒᆞᆫ쇼국이 잇스되 명은 셔스라 강ᄒᆞᆫ나라 일이만의 침노ᄒᆞᆫ비 되엿스니 일이만왕의 일홈은 라덕복이라 이믜 셔스를 엇은후에 태즈 아로피를 보내여셔 스국디방을 다스리니 아로피의 무도잔포ᄒᆞᆷ은 가히 말ᄒᆞ지 못ᄒᆞᆯ쁜더러 또ᄒᆞᆫ 간신이 잇스되 셩은 히로만이요 명은 예스록이라 아쳠ᄒᆞ고 음특ᄒᆞ여 악ᄒᆞᆫ일로 아로피를인

도ᄒᆞ며 빅셩을 학ᄃᆡᄒᆞ니 슯ᄒᆞ다 셔스국 빅셩들이여 이믜 나라이 파ᄒᆞ고 집이 망ᄒᆞ엿스나 누를향ᄒᆞ여 호소ᄒᆞ리오 그 싸다로온 졍스와 악ᄒᆞᆫ법률에 우마와 노복ᄀᆞᆺ치 머리를 슉이고 눈물을 ᄲᅮ리니 다만 마음만 샹ᄒᆞᆯᄲᅮᆫ이요 감히 더브러 항거치 못ᄒᆞ니 셰샹 사람들은 이일을 볼지어다 망국된 인죵의 압졔 밧음이 이ᄀᆞᆺ치 참혹ᄒᆞ고 밍렬ᄒᆞᆫ가 가히 슯ᄒᆞ도다 극진지두에 일으면 반ᄃᆞ시 회복ᄒᆞᆫ다ᄒᆞ니 과연ᄒᆞ다 이말이여 셔스국 빅셩의 마음이 다죽지 안코 분긔가 올걸ᄒᆞᆫ고로 하ᄂᆞᆯ이 영웅 대ᄒᆞ걸을 내이샤 그도탄에 든빅셩을 구ᄒᆞ엿도다

저셜 셔스국 노스니호 ᄯᅡ은 산쳔이 슈려ᄒᆞ고 풍경이 졀승ᄒᆞᆷ으로 사람마다 닐ᄏᆞ르니 이ᄀᆞᆺ치 됴흔ᄯᅡ에 엇지 영웅이 나지아니ᄒᆞ리요 진소위 인걸은 디령이라 이곳에 ᄒᆞᆫ사람이 잇스니 셩명은 유림쳑도라 그 모양을 의론컨ᄃᆡ 등은 두텁고 가슴은 둥글며 두눈은 번ᄀᆡᄀᆞᆺ고 몸이웅장ᄒᆞ고 긔픔이 ᄲᅳᆫ여날ᄲᅮᆫ 아니라 또회포가 활발ᄒᆞ며 일을 당ᄒᆞ매 구차ᄒᆞᆷ이 업고 긔를을ᄯᅳ라 변통을 응ᄒᆞ고 권도잇고 긔관이 만흐니 보는이마다 비샹ᄒᆞᆫ 사람이라 일걸으며 큰 스업을 셩공ᄒᆞ리라ᄒᆞ더라 미양 한거ᄒᆞᆫ때를 당ᄒᆞ면 산으로올나 나는새도 쏘

며 닷는 즘싱도 산양ᄒᆞ며 혹 빅를모라 바다에 ᄯᅥ셔 바람을ᄃᆞ고 물결을 세치니 이런고로 물 셩품을 익히알고 활쏘는법이 ᄲᅱ여나니 족히 유궁후의 활쏘는지죠를 압두ᄒᆞ고 예의 비부리는 힘을 업수이 넉이더라 또ᄒᆞᆫ 셩품이 강긔ᄒᆞ여 쳔쳑파 붕우의 빈궁ᄒᆞᆫ쟈를보면 극진이 구졔ᄒᆞ며 혹 즈긔집으로 청ᄒᆞ여 옷도 버셔주며 밥도 덜여먹이되 조곰도 인식ᄒᆞᆷ이업고 또 큰 ᄯᅳᆺ을 품은고로 군스의 지휘와 진법의 응용을 익히알며 여러가지 병술을 무불통지라 날로 그쳔구를 모와 담화ᄒᆞᆯ제 셔스국 디도를 페여놋코 아모곳은 싸음ᄒᆞᆯ만ᄒᆞ고 아모곳은 직힘이 맛당ᄒᆞ다ᄒᆞ며 시셰를 ᄌᆞ셰히 셜명ᄒᆞ니 이런고로 마음을 허락ᄒᆞ여 좃ᄂᆞᆫ쟈ㅣ만터라 일일은 여러사람을 향ᄒᆞ여 탄식ᄒᆞ되 우리나라 됴흔강산이 맛ᄎᆞᆷ내 타인슈중에 잡혀잇고 동포형뎨가 이믜 타인의 "우마가 되엿스니 어ᄂᆞᆫ때에 능히 고국을 회복ᄒᆞ여 나라를 뎡돈ᄒᆞ고 부강ᄒᆞᆫ나라 평안ᄒᆞᆫ 빅셩이되여 볼고 아지못게라 여러동포ᄂᆞᆫ 과연 이싱각이 잇ᄂᆞᆫ잇가 ᄒᆞ니 그강기ᄒᆞᆫ 언론이 족히 사람으로 ᄒᆞ여곰 일단충심을 격동ᄒᆞᆫ지라 모다 피가 ᄉᆞᆯ코 가슴이 답답ᄒᆞ여 일졔히 이러나 ᄃᆡ답ᄒᆞ되 나라라ᄒᆞᆷ은 빅셩을위ᄒᆞ여 일홈ᄒᆞᆫ비어ᄂᆞᆯ 이졔 나라이 이디경에 이른것은 ᄯᅩᄒᆞᆫ 우리의 어리셕은

죄칙이라 원컨딕 쎄를쓰라 움작이면 우리도힘을 다ᄒᆞ여슈화를 피치안코 죽기를 밍셰ᄒᆞ노라 유림쳑로기 여러사람의 동심ᄒᆞᆷ과 분격ᄒᆞᆷ을 보고깃붐을 촉량치못ᄒᆞ나 일변은싱각ᄒᆞ되 내 이 마음이간졀ᄒᆞ나 다문 셰력이부족ᄒᆞᆷ이 한이로다 반드시 뜻이갓고 지혜잇는 사람을 련합ᄒᆞ여야 가히큰일을 셩공ᄒᆞᆯ지라 ᄒᆞ고 이에됴흔 말노셔로위로ᄒᆞ고 문득 닉당으로도라가 묘칙을 싱각ᄒᆞᆯ식 창자에 가득흔울회를 이긔지못ᄒᆞ여 가슴을 어루만지며 탄식ᄒᆞ더니 그 부인과 아들이 나와문안ᄒᆞ되 어린듯시 안져딕답이 업더라

그 부인이 비록농가에 싱쟝ᄒᆞ엿스나 능히학문을 통ᄒᆞ며대의가 분명ᄒᆞ여 범상ᄒᆞᆫ 남ᄌᆞ보담 쵸등ᄒᆞᆫ지라 미양 그 쟝부로더부러 텬하일을 담론ᄒᆞᆷ익 고금득실을 낫낫이 베푸니 유림쳑로ㅣ 또ᄒᆞᆫ 마음에 공경ᄒᆞ고 아ᄃᆞᆫ의일홈은 화록타라 겨우 십여셰에 심지락락ᄒᆞ며 동쟉이 표표ᄒᆞ여 평일에 부모의 언론을 익히 듯고 ᄋᆡ국심이 풀니지아니ᄒᆞ여 국가회복ᄒᆞᆷ을 ᄌᆞ긔직분으로도 알고 또ᄒᆞᆫ 가뎡지훈을 졍셩으로 직히니 사람들이 층찬안니리업더라 이때 부인이 그 쟝부의 동쟝을삼히니 두눈셥에 근심이 가득ᄒᆞ여 평일에 깃분얼골과 웃는모양이 업고 다문 어린듯 취ᄒᆞᆫ듯 ᄒᆞᆫ지라 이에 화슌ᄒᆞᆫ 얼골로 압헤나가

말ᄉᆞᆷᄒᆞ되 군ᄌᆞ쎄옵셔 큰 뜻을 품으ᄉᆞ 심샹ᄒᆞᆫ회로를 낫탄ᄒᆞ지안코 셰샹의 허다ᄒᆞᆫ 일이죡히마음을 움쟉이지못ᄒᆞ더니 이제 이긋치 심려ᄒᆞᆷ은 아지못게라 무ᄉᆞᆷ일이닛가 의심컨딕 사람에 릉욕을 당ᄒᆞ엿는지 나라일에 긔회가 합당치못ᄒᆞᆷ이닛가 그러나 극진ᄒᆞᆫ 싱각은 리치를 해득ᄒᆞ고 ᄌᆞ셰ᄒᆞᆫ 언론은 의ᄉᆞ를 밝힌다 ᄒᆞ거늘 엇지이대지 근심ᄒᆞ여 ᄉᆞᄉᆞ로 번뇌ᄒᆞ리요 첩이군ᄌᆞ를 모신후 셰월이 여류ᄒᆞ여 이믜 슈십년을 지닛스되 일즉불쾌ᄒᆞᆫ 빗을 보지못ᄒᆞ여더니 이제 이긋치 ᄒᆞᆷ은 실로 무ᄉᆞᆷ일이온지 그 ᄌᆞ셰ᄒᆞᆷ을 듯고ᄌᆞᄒᆞ노니 첩이 비록무식ᄒᆞ나 그 말ᄉᆞᆷ을 인ᄒᆞ야 일반분 의ᄉᆞ를 도으랴ᄒᆞᄂᆞ이다 유림쳑로ㅣ 이윽히 듯다가 탄식ᄒᆞ되 내 심ᄉᆞ는 부인이 아는배어니와 이제 근심ᄒᆞᆷ을 잠간 말ᄉᆞᆷᄒᆞ리라 앗가 맛참 친구로더부러 나라회복ᄒᆞᆯ일을 의론ᄒᆞ더니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불긋치 셩ᄒᆞ여 속히이러나고ᄌᆞᄒᆞᄂᆞᆫ고로 나의 심회가 더욱 착급ᄒᆞ여 거ᄉᆞ코ᄌᆞᄒᆞ나 량식과 긔계도 업고 또ᄒᆞᆫ 뜻긋흔 사람이업ᄂᆞᆫ지라 ᄉᆞ방을 도라보아도 아득ᄒᆞ고 막막ᄒᆞ여 붓칠곳을 아지못ᄒᆞᆯ뿐더러 또 오날 신문에 말ᄒᆞ엿스되 일이만이 우리나라 아리타 디방에 셩을세우고 무슈ᄒᆞᆫ 군ᄉᆞ로 짓친다ᄒᆞ니 그 음특ᄒᆞᆫ 쐬를 헤아리건딕 우리싱명을 다 업시ᄒᆞ

코즈홈이라 그럼으로 내 마음이 둘듸업더니그듸가 이 연고를 알앗스니 아마도 나를 위ᄒᆞ야 불평ᄒᆞ리로다 부인이 문득듸답ᄒᆞ되 쳡이 들으니 아로피가 젼혀 그 간신 예스룩의 흉계를써 우리강산을 짓밟고 우리동포를 살해ᄒᆞ니이는 귀신과 사람이흔가지 미워ᄒᆞ고 텬디가용납지아니ᄒᆞ리니 졔 비록아직 부강ᄒᆞ나 명명지중에 엇지하나님이 삷히지못ᄒᆞ리오 긔회를 기다려 우리빈셩들이 의긔를 흔번들면 반드시 하ᄂᆞ님의 도으심이 계실것이니 그때에 우리나라를 회복ᄒᆞ고 우리원슈를 갑고 우리인군의 권리를 펼것이오 그 도젹을 버혀죽일것이니 이 안니쾌ᄒᆞ릿가 청컨듸 마음을 편이ᄒᆞ샤 근심을 말으소셔ᄒᆞ며 부용ᄀᆞᆺ흔 쌈에 두줄눈물을 금치못ᄒᆞ니 뭇노라 셰샹의 허다흔 남ᄌᆞ들아 이 녀인과ᄀᆞᆺ치 웅쟝흔소견과 츙렬흔 마음이 뉘 능히 그 만분지 일을 밋치리오

이때에 그 아들 확록타가 겻헤안져 부모의 슈쟉을 ᄃᆞᆺ다가 그 슯허ᄒᆞ옴을 보고 분격이 듸발ᄒᆞ여 창ᄌᆞ에 더온피가 끌는지라 곳 압흐로 나와 말ᄉᆞᆷᄒᆞ되 부친씌셔 나라를 근심ᄒᆞ는ᄉᆞᆺ이 말ᄉᆞᆷ에 나탄ᄒᆞ니 졔가 비록어리석고 불초ᄒᆞ나 셩각건듸 국가의 흥망은 사람마다 칙임이잇스니 이졔 나도 망국흔 빅셩이

라 넷나라를 회복코즈ᄒᆞ면 저도 또흔 일분을 참여ᄒᆞᆯ것이오 또 부모씌셔 서로 듸ᄒᆞ야 우름을지으시니 이는 진실노 쓸듸업는지라 뭇잡나니 우름과 근심으로 엇지 뎍국을 ᄭᅩᆺ치릿가 어셔속히 일을 들어 우리원슈를 잡고 우리슈치를 씻는것만 ᄀᆞᆺ지못ᄒᆞ오니 비록 불초ᄒᆞ나 밍셰코 국가를 위ᄒᆞ여 힘을 다ᄒᆞ고 셩ᄉᆞ를 도라보지 안ᄒᆞ리니 복원 부친은 급히 겨셔를 젼ᄒᆞ여 군ᄉᆞ를 일으키면 져는 결단코 창을 잡아좌우에 모실것이니 공을이루면 젼국이 그 복을 밧고 만일 불힝ᄒᆞᆯ지라도 우리부ᄌᆞ의 일홈이 만고에 유젼ᄒᆞ리니 부친의 쥬의는 엇더타 ᄒᆞ느닛가 유림셕로가 그 쳐ᄌᆞ의 동심위국ᄒᆞᆷ을 보고 ᄉᆞᆷᄒᆞᆷ을 도리혀 깃붐을 씌ᄃᆞᆺ지못ᄒᆞ여 하ᄂᆞ님씌 비러 골ᄋᆞ듸 황텬황텬이여 우리의 지셩을 솔피샤 우리로 ᄒᆞ여곰 죽고자 아니ᄒᆞ시거든 원컨듸 도으샤 대ᄉᆞ를 일우게 ᄒᆞ쇼셔 ᄒᆞ며 세사람이 정히 담론ᄒᆞᆯ식 홀연들으니 개 짓는소릐 나며 사람의 자최가 들리거ᄂᆞᆯ 유림쳑로는 본듸 조심ᄒᆞ는 사람이라 이 깁흔밤에 국ᄉᆞ를 의론ᄒᆞᆷ이 오작 비밀ᄒᆞ거ᄂᆞᆯ 엇지ᄒᆞ여 외인의 자최소릐가 잇는고 인ᄒᆞ여 그 아들을 ᄃᆞ리고 문을열고 삷혀보니 과연일싱의 졀친흔 친구라 셔로 손을 잡고 들어가 피ᄎᆞ서로 깃거ᄒᆞᆷ이 측량치 못ᄒᆞ니 이사람의 셩은 늑득목

이요 명은 아로나이니 긔골이 웅장ᄒᆞ고 의스가 광활ᄒᆞ여 ᄯᅩᄒᆞᆫ 일국의 영웅이라 서로례를 필ᄒᆞ고 녯졍을 셜화ᄒᆞ다가 유림쳑로ㅣ 물어 글으ᄃᆡ 아지못게라 이ᄉᆞ이 무ᄉᆞᆷ소문이 잇ᄂᆞ뇨

아로나ㅣ 길이 탄식ᄒᆞ고 분연히 일으ᄃᆡ 일이만아 우리의 토디와 지물을 앗고 우리동포를 죵으로 부리며 학ᄃᆡ가 날노 더욱심ᄒᆞ도다 일젼에 우리동포 ᄒᆞᆫ사람이 로샹에셔 일이만 사람을 맛나셔 경례를 좀더ᄃᆡ ᄒᆞᆫ다고 잡아내여 무수히 란장ᄒᆞ고 ᄯᅩ 쑤짓기를 너는 우리죵이라 죵놈이 샹뎐에게 불공ᄒᆞ면 그 죄는 죽여야 합당ᄒᆞ다ᄒᆞ고 인ᄒᆞ여 쳐참ᄒᆞ엿스니 가련ᄒᆞ다 우리젼국 빅셩이 이 디경에 니르엇스니 쇠털ᄀᆞᆺ흔 날에 그 위염과 학졍을 엇지견댈고 원통ᄒᆞ고 참혹ᄒᆞᆫ 긔운이 공즁에 가득ᄒᆞ여 하ᄂᆞᆯ에 일월이 업는듯 ᄒᆞ도다 우리가 이때를 당ᄒᆞ여 거ᄉᆞ치안코 다시무엇을 ᄇᆞ라리오 셜파에 두눈을 부릅쓰고 노긔가 발발ᄒᆞᆫ지라 유림쳑로가 문득이ᄅᆞᄃᆡ 형이 이러듯 ᄒᆞᆷ은 과연 날노ᄒᆞ여곰 곳거ᄉᆞ코져 ᄒᆞᆷ인가 아로나ㅣ 벌덕니러나 가슴을치며 닐으ᄃᆡ 텬시가 당ᄒᆞ엿스니 긔회를 일치 못ᄒᆞᆯ지라 우리의 날노ᄇᆞ라기는 형이 ᄒᆞᆫ번ᄯᅳᆯ치고 니러나면 밍셰코 싱ᄉᆞ를 ᄒᆞᆫ가지 ᄒᆞ여 도젹을 물니치고 국가를 회복ᄒᆞ리로다

유림쳑로ㅣ ᄯᅩᄒᆞᆫ ᄃᆡ답ᄒᆞ되 우리가 국가의 신민된 직분을 싱각ᄒᆞ면 맛당히 힘을 다ᄒᆞ려니와 다만 두려워ᄒᆞ는바는 경솔이 움작이는 것이 양의떼로 범의 입을 향ᄒᆞ면 필연 대환을 무릅쓰고 후셰에 우음을 면치못 ᄒᆞᆯ것이니 십분싱각ᄒᆞ여 만젼지계를 엇지못ᄒᆞ면 결단코 셩ᄉᆞ치 못ᄒᆞ리라 오작한ᄒᆞ는바는 ᄯᅳᆺ곳흔사람이 얼마나 ᄒᆞ뇨 오합지즁은 져의련습ᄒᆞᆫ 군ᄉᆞ를 당치못ᄒᆞᆯ것이오 일이 ᄒᆞᆫ번 와해ᄒᆞ면 ᄒᆞᆫ갓죽을 ᄲᅮᆫ이라 무엇이 유익ᄒᆞ리오 몬져 영웅을 엇어 때를 기다린연후에 가히 셩공ᄒᆞ리로다 이로나ㅣ 급히ᄃᆡ답ᄒᆞ되 그 놈의 악ᄒᆞᆫ 정ᄉᆞ가 극진지두에 니른지라 우리빅셩이 사람마다 졀치부심 ᄒᆞᆯᄲᅮᆫ더러 ᄯᅩᄒᆞᆫ 내가 평일에 허다ᄒᆞᆫ ᄉᆞᆺ잇는 션비를 련결ᄒᆞ엿스니 만일 격셔를 젼ᄒᆞ여 ᄒᆞᆫ번 부르면 십만지즁을 잠시에 모ᄒᆞᆯ것이니 그때에 형으로 대원슈를 삼고 하ᄂᆞ님의 도음을 엇어 의병이 니르는 곳마다 사람의 깃분마음이 대한의 감우와 ᄀᆞᆺᄒᆞ리니 ᄲᆞᆯ니 영웅의 도략을 ᄯᅳᆯ치고 니러날지어다 서로 슈작ᄒᆞᆯ시 동방이 붉는줄을 ᄉᆡ닷지 못ᄒᆞ더라 부득이 서로손을 눈와 작별ᄒᆞ며 뎡녕이 부탁ᄒᆞ고 각각도라 오니라

각셜 아로나ㅣ 도라온후로 여러친구에게 비밀이 통긔ᄒᆞ여 각각 무리를 모아

서로 회복ᄒᆞ기를 도모ᄒᆞ더라 일일은 흑운이 몽롱ᄒᆞ고 뢰셩이 진동ᄒᆞ며 비가나리니 진소위 호우지시졀이리 농ᄉᆞᄒᆞᄂᆞᆫ 사람의 힘쓸ᄯᅢ가 졍히 당ᄒᆞ엿도다 아로나는 본ᄅᆡ 셰ᄃᆡ로 농업에 의탁ᄒᆞᆫ 사람이라 이날에 그 부친이 아로나로더브러 뎐원에나아가 소를 잇ᄉᆞᆯ며 호미를 두루고 부ᄌᆞㅣ 힘을ᄒᆞᆫ가지ᄒᆞ여 일ᄒᆞᆯ적에 그 부친이 비록 긔운이잇스나 나히칠십이라 졍신이 ᄌᆞ연감ᄒᆞ려던 하물며 ᄯᅢ가 반일을당ᄒᆞ매 비가ᄀᆡ이고 폭양이ᄯᅩ이고 더운긔운이 사람을 핍박ᄒᆞ니 드ᄃᆡ여 수림을향ᄒᆞ여 잠간쉬일ᄉᆡ 인ᄒᆞ여 서로 셰샹일을 담론ᄒᆞ다가 고국의 망ᄒᆞᆷ을 탄식ᄒᆞ더니 홀연 들ᄂᆡ는소ᄅᆡ 물ᄉᆞᆯ듯ᄒᆞ거ᄂᆞᆯ ᄌᆞ셰히보니 아로픽의 간신 예ᄉᆞ록의군ᄉᆞ라 그 흉악ᄒᆞᆫ놈의 하인인고로 ᄯᅩᄒᆞᆫ 잔인포학ᄒᆞ여 지물노략ᄒᆞ기와 부녀겁탈ᄒᆞ기로 일삼더니 이ᄯᅢ에 슈풀ᄉᆞ이에 소가잇ᄂᆞᆫ거슬보고 ᄉᆞᆯ어가거ᄂᆞᆯ 아로나의부친이 압흐로 나아가 됴흔말노 무러왈쥬인잇ᄂᆞᆫ물건을 무단이취ᄒᆞᆷ은 엇지ᄒᆞᆫ연고뇨 여러놈이 일졔히ᄃᆡ답ᄒᆞ되 저소가 살지고 윤ᄃᆡᆨᄒᆞ여 심히 우리관원식셩에 합당ᄒᆞ니 수다히말을말고 우리관원에게 공궤ᄒᆞᆷ이 맛당ᄒᆞ니라 로인의마음은 ᄒᆞ샹 됴심만코 ᄯᅩᄒᆞᆫ 그 군ᄉᆞ의 강포횡힝ᄒᆞᆷ을 념려ᄒᆞ여 더욱공슌ᄒᆞᆫ말노 두셰번간청ᄒᆞ되 죵시듯지안ᄂᆞᆫ지라

아로나ㅣ 겻헤잇다가 급히내다러 ᄭᅮ지저왈 이무도ᄒᆞᆫ놈들아 흉포ᄒᆞᆫ 위력을빙쟈ᄒᆞ고 청텬빅일에 긔탄업시 노략ᄒᆞ니 오히려 사람이라ᄒᆞ리오 내소를놋코 ᄲᅡᆯ니도라감이 당연ᄒᆞ니라 군ᄉᆞ들이 욕셜노ᄒᆞᄂᆞᆫ말이 너는 셔ᄉᆞ국쳔ᄒᆞᆫ죵ᄌᆞ요 개ᄀᆞᆺ흔빅셩이라 우리ᄀᆞᆺ치존즁ᄒᆞᆫ 병졍을몰을소냐 다만농우일필을 앗기지말고 너의인명을 ᄉᆡᆼ각ᄒᆞᆯ지어다 아로나ㅣ 평일에 일이만원슈를 ᄉᆡᆼ각ᄒᆞ면 ᄌᆞ연이가갈리고 살이ᄲᅧᆯ림을 금치못ᄒᆞ거던 이졔 이무리의 이말을 ᄒᆞᆫ번드르매 더운피가 ᄉᆞᆯ어올나 억졔ᄒᆞᆯ수업ᄂᆞᆫ지라 다시 소ᄅᆡ를가다듬어 ᄭᅮ지져왈 이개ᄀᆞᆺ흔무리야 무죄ᄒᆞᆫ인민을 잔해ᄒᆞ고 허다ᄒᆞᆫ지물을 탈취ᄒᆞ여 죄악이 하ᄂᆞᆯ에 사못ᄎᆞ거ᄂᆞᆯ ᄯᅩᄒᆞᆫ 나의물건을 ᄲᅥ앗고자ᄒᆞᄂᆞ뇨 내진실노 너희게닐ᄋᆞ노니 힐란말고 밧비가라 만일 츄ᄒᆞᆫ입을 두번열면 나의주먹을 면치못ᄒᆞ리라 군ᄉᆞ가 이말을듯고 일졔히 벌일듯ᄒᆞ나 엇지아로나의 유명ᄒᆞᆫ슈단을 당ᄒᆞ리오 어려셔브터 주먹질과 발로ᄎᆞ기를 련습ᄒᆞ여 일신에 가득ᄒᆞᆫ지조가 가위 능당빅만이라 이ᄀᆞᆺ흔 개미무리를 근심ᄒᆞ리오 이르는곳마다 물결ᄀᆞᆺ치허여지고 입ᄉᆡᄀᆞᆺ치ᄲᅧᆯ어지니 슌식간에 두골이샹ᄒᆞ고 슈족이ᄲᅥ기고 턱이ᄯᅥ러져 ᄯᅡᆼ에업드린쟈와 죽은놈이 무수ᄒᆞ여 바람ᄀᆞᆺ치 문어져 황황분쥬ᄒᆞ더라 여간남은군ᄉᆞ는 목

숨을보존ᄒᆞ여 본진으로도라가 예스륵에게 고ᄒᆞ여 ᄋᆡ제히 군마를 니르키여 쏫치니라 아로나ㅣ 그군스도라간후에 반드시 후환이잇슬줄알고 부친으로더브러 소를잇끌고 집에도라와 몸피ᄒᆞᆯ계교를 의론ᄒᆞ더니 어언간에 예스륵의인마가 바람처럼 달려오는지라 아로니ㅣ 그 풍셩을듯고 곳 그부친을붓들어 ᄒᆞᆫ가지 산곡에드러가 피란코ᄌᆞᄒᆞ더니 그부친은 로인이라 ᄲᆞᆯ리닷지못ᄒᆞᆯ쓴더러 ᄯᅩᄒᆞᆫ 소를 타인에게 닐흘가념녀ᄒᆞ여 결단치못ᄒᆞ니 아로나는 스셰졀박ᄒᆞ나 몬저다라나고 그 부친은 뒤에ᄯᅳ르더니 예스륵이 스스로 군마를거ᄂᆞ리교 셩화ᄀᆞᆺ치쏫치나 발서 종적을알수업ᄂᆞᆫ지라 ᄒᆞᆫ편으로 군스를노와 차즈며 ᄒᆞᆫ편으로 그 부친을잡아 본진으로가셔 무수ᄒᆞᆫ릉장으로 류혈이랑자ᄒᆞ니 저 칠십로인이 엇지이ᄀᆞᆺ흔 독ᄒᆞᆫ형벌을견ᄃᆡ리오 ᄯᅩ ᄭᅮ지조며ᄒᆞ는말이 네가 무도ᄒᆞᆫ 조식을 두엇스니 그죄가 맛당히죽이리라ᄒᆞ며 련ᄒᆞ야치니 그잔학ᄒᆞᆷ은 금슈도뮈워ᄒᆞ고 로인의경상은 초목도 눈물을짓더라

챠셜 아로나ㅣ 산곡에 숨엇더니 셕양은나무그림ᄌᆞ를잇끌고 산ᄉᆡ는 깃드림을 닷토는지라 ᄉᆞ방에 인마소ᄅᆡ 젹연ᄒᆞ거ᄂᆞᆯ 이에 자최를 비밀이ᄒᆞ여 산밧긔나아와 두루살피되 그 부친을 보지못ᄒᆞ겟ᄂᆞᆫ지라 무수히 부르며찻다가 비로소

잡혀간줄을알고 ᄉᆞᆲᄒᆞᆫ마음에 분ᄒᆞᆫ긔운을 금치못ᄒᆞ여 곳 집에도라와 여간가ᄉᆞ를이웃 사람에게 부탁ᄒᆞ고밤새기를 기다려힝장을 슈습ᄒᆞ여집을써나 부친의소식을 탐지ᄒᆞᆯ시 ᄒᆞᆫ천구을 찻저밋처한헌을다ᄒᆞ지 못ᄒᆞᆯ지음에 그곳 사람이와셔 말ᄒᆞ기를 피이ᄒᆞ도다 오날셩문에 ᄒᆞᆫ장뎐령이 붓터시되 상금을후이주어 사람을잡으라 ᄒᆞ엿스니 그글에무도ᄒᆞᆫ 아로나ㅣ관쟝을릉욕ᄒᆞ고 인명을살해ᄒᆞ엿스ᄆᆡ 그아비는 이믜가두고 형벌ᄒᆞ여 쟝ᄎᆞᆺ죽이려니와 그놈을잡는쟈는 즁상을줄것이니 너희군ᄉᆞ와 ᄇᆡᆨ셩들은 각별이 거힝ᄒᆞ라 ᄒᆞ엿더라 ᄒᆞ거ᄂᆞᆯ 이로나ㅣ이말을들으ᄆᆡ 노긔등등ᄒᆞ여 소ᄅᆡ를가다듬어이ᄅᆞᄃᆡ 일이만이 우리강산을앗고 우리ᄇᆡᆨ셩을 살해ᄒᆞ여도 오히려 부죡ᄒᆞ여 역뎍이라 지목ᄒᆞ며 씨업시죽이고조ᄒᆞ니 죽기는일반이라 머리를숙이고 죽기를 기ᄃᆞ릴진ᄃᆡ 차라리한번이러나 셩공치못ᄒᆞ면 죽고말것이오 혹 하ᄂᆞ님의 은혜를입어 고국을회복ᄒᆞ면 이안이 다힝ᄒᆞᆫ가 슬품이 분긔를ᄎᆞᆺ차 발ᄒᆞ여 두줄눈물이 영웅의옷깃을적시는지라 여러사람이그 분격ᄒᆞᆷ과 의국셩을 감동ᄒᆞ여 공경ᄒᆞᄂᆞᆫ마음으로 일졔이위로ᄒᆞ되 형이이다지근심ᄒᆞ시니 도로혀민망ᄒᆞ여이다 국가의회복은 우리도사람마다 당ᄒᆞᆯ직칙이라 이마음이 간졀ᄒᆞᆫ지가 오ᄅᆡ로ᄃᆡ 오작한

ᄒᆞ는 바는뉘가능히 ᄉᆞ방으로다니며 인심을고동ᄒᆞ여 셩ᄉᆞ케ᄒᆞ리오 이럼으로 우리동포들이 일월을보지못ᄒᆞ고 침침디옥에 ᄲᅡ진지오릭더니 이제형이 일단충의로 몸을앗기지 안코나아가고ᄌᆞᄒᆞ시니 우리가비록지죠는 업스나한 팔힘을 도오랴ᄒᆞ노니 존의가엇더ᄒᆞ뇨 아로나ㅣ이말을들으믹 분ᄒᆞᆫ긔운은 봄눈녹듯 ᄒᆞ고깃분마음이 단비나리듯ᄒᆞ여 급히ᄃᆡ답ᄒᆞ되 텬힝이로다 이일이여 오작바라는바는 진실ᄒᆞᆫ 마음으로 구든뜻을 변치말지어다 ᄆᆡ가원컨ᄃᆡ ᄉᆞ방으로 격셔를텬ᄒᆞ여 쟝ᄉᆞ를불너 ᄯᅥ를ᄯᅡ러 움작이면 엇지쾌ᄒᆞ지 안이리오 인ᄒᆞ여 고요ᄒᆞᆫ곳에 모아셔로샹의ᄒᆞᆫ후에 일쟝격셔를 지으니 일홈은 의국당 희복셔ᄉᆞ격이라 그글에이로ᄃᆡ

슬푸다 우리셔ᄉᆞ국금옥ᄀᆞᆺ든 강산이불힝이 개와돗ᄀᆞᆺ든 일이만의 침로ᄒᆞᆫ빅되엿도다 머리를둘으믹 근심구름이 츰담ᄒᆞ고 눈물을ᄲᅮ리믹 찬바람이 소실ᄒᆞ도다 텬디가위ᄒᆞ여 근심ᄒᆞ니 영웅이몸둘곳이 젼혀업도다 져두도ᄒᆞᆫ원슈놈은 오히려부족ᄒᆞ여 살해겁탈ᄒᆞ고 마음ᄃᆡ로 횡힝ᄒᆞ니 진실로귀신과 사람이다 미워ᄒᆞ는ᄇᆡ라 슯흐다 우리동포들이여 귀쳔샹ᄒᆞ와 로소남녀물론 ᄒᆞ고다션왕의 은혜입은ᄇᆡᆨ셩이라 국가가멸망ᄒᆞ면 어ᄂᆡ곳에 목숨을부탁ᄒᆞ며 다힝이살더ᄅᆡ도 뉘를향ᄒᆞ여 의지ᄒᆞ리오 내드르니 지극ᄒᆞᆫ졍셩은 하ᄂᆞᆯ이감동ᄒᆞ고 ᄯᅳᆺ이잇스며 일을셩공ᄒᆞᆫ다ᄒᆞ니 바ᄅᆞ건ᄃᆡ 죽기로밍셰ᄒᆞ고 힘을 한가지ᄒᆞ여 이익운을버셔나면 무슴일을 셩공치못ᄒᆞ며 한번긔회를 엇은즉 형셰를인ᄒᆞ여 이ᄀᆞᆺ든원슈를 물리치고 골슈에사못찬 분을쾌이풀고 평안ᄒᆞᆫ 나라에 복잇는ᄇᆡᆨ셩을지으면 참쟝부의힝식이요 사람마다 당ᄒᆞᆫ직분이라 여러동포는 바람을응ᄒᆞ여 이러날지어다

쓰기를맛치ᄆᆡ 좌즁을향ᄒᆞ여 일편랑독ᄒᆞ고 여러사람으로 수쳔쟝을 쓴연후에 아로나ㅣ몸에 가두ᄒᆞᆫ지죠를 잇슬고각쳐 디방으로 향ᄒᆞ여갈시 쥬야를싱각지 안이ᄒᆞ며 풍우를혐의치안코 쳔만가지고샹을 갓츄어 지내니 대범큰일을 당ᄒᆞ여ᄯᅳᆺ잇는 사람이야 엇지여간 괴로움을 ᄀᆡ교ᄒᆞ리오 각셜셔ᄉᆞ국에한무리가 잇스니 사람이만을ᄲᅮᆫ더러 그두목은 응덕화뎡과 ᄉᆞ격와와노다리 세사람이니 취당ᄒᆞᆫ지반년만에 호결이삼ᄇᆡᆨ여인에 이른지라 고국회복ᄒᆞ랴고 쥬야로지죠를 련습ᄒᆞ며 병법을강구ᄒᆞ여 흉샹긔회업슴을 한탄ᄒᆞ더니 아로나ㅣ이말을듯고 깃분마음이 하ᄂᆞᆯᄀᆞᆺ든지라 곳 그디방을찻져 여러사람을맛나ᄆᆡ 몬져긔샹을 삽히니 사우나온 용밍ᄒᆞᆫ범이 태산을뒤는듯 웅쟝ᄒᆞᆫ긔식은 룡이챵히를 흔

듣는듯ᄒᆞ니진실로영웅쥰걸의쥬ᄒᆞᆫ지목이로다 아로나ㅣ한번보ᄆᆡ마음을허락ᄒᆞ고곳더부러시셰를 말ᄒᆞ며인ᄒᆞ여 소ᄆᆡ로서 일쟝격셔를 내여보이니 읽기를 맛치지못ᄒᆞ여 ᄲᅱ놀고부루지지여 이로ᄃᆡ고국강산이 어늬곳인고 참아머리를둘으지 못ᄒᆞ리로다 우리가 맛당이 동심협력ᄒᆞ여 산으로 ᄆᆡᆼ셰ᄒᆞ고 바다로증거ᄒᆞ여 국기를 회복ᄒᆞᆷ이 우리의 담당ᄒᆞᆫ 칙임이로다 아로나ㅣ 이말을드르ᄆᆡ 머리를 굽혀 공경ᄒᆞ여왈 그대들이 일을들면 소뎨는 위ᄒᆞ여 말ᄃᆡ에 츄창ᄒᆞ기를 원ᄒᆞ노라 여려사람들이 그웅쟝ᄒᆞᆫ 긔골과공경ᄒᆞᆫ 긔샹을 보고 ᄌᆞ연사랑ᄒᆞ고 ᄉᆞ모ᄒᆞ는마음이 이러나서서로손을잡교집으로도라가 침식을한가지ᄒᆞ여 심졍을 통ᄒᆞ더라 차셜 유림쳑로ㅣ아로나를 이별ᄒᆞᆫ후에 손을곱어 기다리더니 몃날이 못ᄒᆞ여 그부친이 예ᄉᆞ룩에 잡히여 혹독ᄒᆞᆫ 형벌로 무수이 핍박ᄒᆞ여 아로나를곳 잡아들이라ᄒᆞ더니 ᄯᅩ그로인의 죽은소문을 이어드르ᄆᆡ더욱분긔를 이긔지 못ᄒᆞ는쥼아로나의죵젹을아지못ᄒᆞ여 졍히 착급ᄒᆞ더니 일일은 한벗이 문을 두다리며 부르되 아모아모가 긴급ᄒᆞᆫ ᄉᆞ졍이 잇기로 로형으로 더부러 의론ᄒᆞ기를 원ᄒᆞ더이다 유림쳑로ㅣ 급히문을열고 영졉ᄒᆞ여 서로손을 잡고 심ᄉᆞ를 강론ᄒᆞ니 이사람은 ᄉᆞ지렴 짱에사는 뚯잇는 선비라 몸은

비록쟝대치못ᄒᆞ나심디는 극히웅쟝ᄒᆞ여ᄒᆞᆼ상 국가회복ᄒᆞᆯ마음이간졀ᄒᆞᆫ 사람이라 이럼으로 유림쳑로를 찻저뚯을 기우려 일을 의론ᄒᆞᆷ이러라 그말에 ᄒᆞ엿ᄉᆞ되 우리샤지렴 사람들이 다 국가를 위ᄒᆞ여 죽기를 원ᄒᆞ니 바라건ᄃᆡ 형은 몸을움죽이여 아로나로 더부러일을일으키라ᄒᆞ니 유림쳑로ㅣ이말을듯고 곳 힝쟝을 다ᄉᆞ리여 위리니로 더부러 샤지렴 디방에 이르러 모든이와 한가지 심ᄉᆞ를 의론ᄒᆞ니 모다늣게맛남을 탄식ᄒᆞ더라 이튼날 일졔히 떠나 아로니도찻고 다소ᄒᆞᆫ 영웅을 구ᄒᆞ고ᄌᆞᄒᆞ여 하ᄂᆞᆯ을 가르쳐 밍셰ᄒᆞ되 우리가 우리고국을 회복ᄒᆞ고 우리동포를 구원ᄒᆞᆯ것이니 황텬후토는 이뚯을 하감ᄒᆞ샤셩ᄉᆞ치 못ᄒᆞ면 차라리 죽는것이 영화롭고 욕되지안이 ᄒᆞ리로다 당하에 수심인이 길을 ᄯᅥ나라샹하 물가에 이르니 홀연 흑운이몽롱ᄒᆞ며 풍우가 대작ᄒᆞ여 물결이 뒤집는지라 ᄉᆞ공이감하 배를부리지 못ᄒᆞ거ᄂᆞᆯ 유림쳑로ㅣ여러사람의 ᄯᅳᆺ시경동ᄒᆞ여 퇴츅홀가 념려ᄒᆞ여 곳 소릐를 가다듬어 무리를 향ᄒᆞ여 말ᄒᆞ되 우리는 국ᄉᆞ을 위ᄒᆞ여 싱ᄉᆞ를 불고ᄒᆞ는 사람이라 엇지이ᄀᆞᆺ흔 풍우가 우리의 졍셩을 막으리오 내가 평일에 대강 물의셩품을 아ᄂᆞᆫ지라 만일 ᄉᆞ공이 건느지 못ᄒᆞ거든 내가 ᄃᆡ신ᄒᆞ여 배를 부릴것이니 우리 수쥭ᄀᆞᆺ흔

형뎨들은 쳥컨딕 압일을 싱각ᄒᆞ여 조금도 두려워말고 위딕ᄒᆞᆷ을 무릅슴이맛당ᄒᆞ도다 뭇사람이 다ᄒᆞᆫ이 깃분빗으로 소매를 련ᄒᆞ여 배에오르거ᄂᆞᆯ 유림쳑로ㅣ 치를잡고 돗을열어 슌식간에 건느니라 이ᄯᅴ아로나ㅣ 그ᄃᆡ방에잇서 유림쳑로와 여러사람이 옴을듯교 만심환희ᄒᆞ여 곳 여러동지로 더부러 멀리나와 영졉ᄒᆞ여 손을잡고 도라와 여러무리와 빈쥬를 뎡ᄒᆞᆫ후에 돗을ᄉᆞᆲ고 소를잡아 잔치를 비셜ᄒᆞ니 유림쳑로의 아ᄃᆞᆯ 화록타가 연셕에 츰예ᄒᆞ엿다가 국ᄉᆞ를위ᄒᆞ여 갓ᄀᆡᄒᆞᆫ 언론과 충분ᄒᆞᆫ 심ᄉᆞ를 사람마다 칭찬안이리 업더라 아로나 유림쳑로를 향ᄒᆞ여 조긔부친 소식을 뭇다가밋 예ᄉᆞ록에게 피해ᄒᆞᆷ을 듯고 무슈이 통곡ᄒᆞ다가 다시우름을 긋두고 탄식ᄒᆞ되 대장부ㅣ 큰일을 경영ᄒᆞᆯ진ᄃᆡ 엇지 가ᄉᆞ를 싱각ᄒᆞ리오ᄒᆞ고 곳 격셔를 내여뵈이니 유림쳑로ㅣ 한번보ᄆᆡ손벽치며 일캇고 취ᄒᆞᆷ을 인ᄒᆞ여 일곡쳥가를 자아내니 그일홈은 ᄋᆡ국가라 이ᄯᅴ에 유림쳑로의 졍신이 싹싹ᄒᆞ고 긔샹이 당당ᄒᆞ여 얼골은 도화ᄀᆞᆺ고 음셩은 봉황ᄀᆞᆺᄒᆞ여 진실로 격앙강기ᄒᆞ며 쾌락림리ᄒᆞ여 신션이 하강ᄒᆞᆫ듯ᄒᆞ니 뉘 안이 층찬ᄒᆞ며 탄복ᄒᆞ리오 연후에 츠례로 연셜을 ᄒᆞ니 말마다 나라회복이요쇼리마다 빅셩구원이라이 날밤에 놉흔 흥차와 웅쟝ᄒᆞᆫ언론으로 동방이밝

ᄂᆞᆫ쥴 ᄭᅦ닷지 못ᄒᆞᆯ너라 이ᄀᆞᆺ치 즁대ᄒᆞᆫ일에 엇지 쳔금ᄀᆞᆺᄒᆞᆫ 시간을 잠시나 허숑ᄒᆞ리오 조반을 ᄌᆡ촉ᄒᆞ여 먹은후에 각각 ᄯᅳᆯ쳐 일어나 소임ᄃᆡ로 힝ᄒᆞᆯ시 군마도 부르고 군량도 구ᄒᆡᆨᄒᆞ고 ᄃᆡ형도 ᄎᆞᆨ량ᄒᆞ고 소식도 졍탐ᄒᆞ고 ᄌᆡ물도 쥰비ᄒᆞ라고 분쥬불가ᄒᆞ더라 아로나ㅣ 문득 유림쳑로을 향ᄒᆞ여 말ᄒᆞ되 형의 부즈는 이곳을 진무ᄒᆞ라 소뎨가 맛당이 밧긔 나아가 용밍과 지식잇는 사람을 구ᄒᆞᆯ것이오 ᄯᅩᄒᆞᆫ 형의 고향은 인마가 강셩ᄒᆞ고 풍쇽이 슌박ᄒᆞ여 형의 의긔를 슝즁ᄒᆞ는배라 만일 형의 신표만 잇스면 일졔이 ᄯᅡ를것이니 쳥컨ᄃᆡ 일쟝 셔신을 쵸ᄒᆞ여 내에게 부치기를 바라노라 그아ᄃᆞᆯ 화록타ㅣ 이말을듯고 압헤 나아가 말ᄉᆞᆷᄒᆞ되 한 부탁ᄒᆞᆯ 말ᄉᆞᆷ이잇스니 제가 집에잇서 공부ᄒᆞᆯ적에 여러 션ᄇᆡ를 쳬결ᄒᆞ여 그 회복ᄒᆞᆯ 열심이 잇는줄을 알엇스니 셔의 셔찰을 뎐ᄒᆞ면 반ᄃᆞ시 ᄯᅡᆯ것이니 오날 일은 무론 아모ᄒᆞ고 사람 엇는것이 뎨일이로소이다 셜파에 지필을 잡어 일봉셔신을 써 드리거ᄂᆞᆯ 아로나ㅣ 밧아 힝장에 슈습ᄒᆞ고 인ᄒᆞ여 유림쳑로의 부즈로 더부러 상약ᄒᆞ되 명년 졍월에 아모 짱으로 맛날젹에 불드는 것으로 군호ᄃᆞᆯ삼어 이리이리 비밀ᄒᆞᆫ 스졍을 셜화ᄒᆞᆫ후에 손을 난와 쟉별ᄒᆞ니라

챠셜 유림쳑로ㅣ 아로나를 쟉별혼후에 부즈ㅣ 서로병법을 강론ᄒᆞ며 군긔를 련습ᄒᆞ더니 일일은 일긔가 쳥명ᄒᆞ고 몱은 바람에 새소릭 심히 아름다이 사람의 흥ᄃᆡ를 지촉ᄒᆞ는지라 이ᄯᅢ 유림쳑로ㅣ 오릭 긱관에 쳐흠의 심회가 젹막ᄒᆞ여 깃거온 마음이 사라지고 울젹혼 긔샹이 나탄ᄒᆞ니 화록타ㅣ 압혜 나아가 말숨ᄒᆞ되 부천씌셔 불평혼 심회를 지으시니 반ᄃᆞ시 무슴 감동흠이 잇스오니 바라건ᄃᆡ 잠간 몸을 움죽이어 괘혼 긔운으로 산에 올라 김싱이나 산양흠이 조흘듯 ᄒᆞ여이다 유림쳑로ㅣ 깃거ᄒᆞ여 련망이 ᄃᆡ답ᄒᆞ되 내근일에 가장 젹막ᄒᆞ여 민망흠을 스스로 풀지 못ᄒᆞ엿더니 네말이 이에 밋츠니 아지못게라 너도 한가지 가기를 원ᄒᆞᄂᆞ냐 화록타는 본ᄃᆡ 영쥰혼 남즈라 교요흠을 깃거ᄒᆞ지 안는지라 혼연이 ᄃᆡ답ᄒᆞ고 부즈ㅣ 서로 이러나 산양옷을 입고 활과 살을 쥰비ᄒᆞ고 가동을 분부ᄒᆞ여 문호를 단속혼 연후에 곳 심산궁곡을 향ᄒᆞ여 활을 베플며 살을 노흘시 닷는 김싱이며 나는 새가 일졔히 시위소릭를 응ᄒᆞ여 ᄯᅥ러지니 진실로 빅발빅즁이라 잠간사이에 엇은 김싱이 무슈ᄒᆞ나 오즉 과도히 만흐면 잇슬어 가기가 어려운지라 이에 활을 머무르고 김싱을 한ᄃᆡ 합ᄒᆞ여 지고 산에 나려오니 비록 수빅인이라도

능히 다 먹지 못ᄒᆞᆯ것이오 ᄯᅩᄒᆞᆫ 일긔가 심이 더워 샹ᄒᆞᆯ가 두려운지라 드ᄃᆡ여 저자를 향ᄒᆞ여 팔시 이 저자에 김싱이 이ᄀᆞᆺ치 만히 남은 젼부터 처음이라 사람마다 사기를 다투는고로 멋시가 못ᄒᆞ여 다 팔닌지라 일모혼후에 부즈ㅣ 서로 려관을 향ᄒᆞ여 쉬일시 홀연 들릭는 소릭 이러나며 좌즁사람이 모도 황황ᄒᆞ거ᄂᆞᆯ 유림쳑로ㅣ 그 연고를 알고즈ᄒᆞ여 부즈ㅣ 한가지 문에나려 한곳에 다다르니 무수혼 사람이 산ᄀᆞᆺ치 모혓ᄂᆞᆫ지라 유림쳑로ㅣ 의관을졍졔히ᄒᆞ고 즁인을 향ᄒᆞ여 공슌히 말숨ᄒᆞ되 렬위쳠존에게 한말로 뭇노니 우리가 서로 저자에 왕릭ᄒᆞ며 싱업을 경영혼즉 오즉 평안키를 요구ᄒᆞᆯ것이어ᄂᆞᆯ 이ᄀᆞᆺ치 분란흠은 아지못게라 무슴연고니잇가 마촘 쟝안빅발로인이 유림쳑로의 공경ᄒᆞ고 은근흠을 보고 문득 답례ᄒᆞ고 말을열어 ᄃᆡ답ᄒᆞ되 존ᄀᆡ은 알지못ᄒᆞ리로다 우리가 이곳에 싱업혼지 오릭지라 혹 불시로 일이잇스면 조흔말로 여러 사람을 뎡돈ᄒᆞ여 불평흠이 업더니 불의에 이ᄀᆞᆺ흔일이 잇슬줄을 엇지 료량ᄒᆞ엿스리오 쳥컨ᄃᆡ 즈셰히 드르소셔 우리가 일이만에게 학ᄃᆡ 밧음은 가히 말ᄒᆞᆯ수 업거니와 오날 당ᄒᆞ여는 더욱 분통혼일이 잇스니 져자길에 나무기동을 세우고 그우에 모즈를씨우고 일쟝 뎐령을 부쳣시되